

지역 소식통

부안군-한전MCS 부안지점 안전사각지대 해소 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한전 MCS(주) 부안지점(지점장 이광수)은 지난 22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허용권 안전총괄과장과 이광수 한전 MCS(주) 부안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관내 위험 요소나 재난 우려 사항 등의 안전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한전MCS 부안지점은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체납관리 및 고객서비스 현장 업무 등의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부안군 안전보안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MCS 부안지점은 전력 산업 현장 업무 중 위험 요소와 재난 우려 사항 발견 시 안전총괄과에 연계하여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공모 위한 간담회

정읍시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단체 및 시설장,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역상생형 평생학습, 평생학습 동아리 결성,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 등)을 발굴하고, 실무자 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이 적극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술 베풀며 여생 보내겠다”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 11월 1일부터 고부보건지소장으로 근무



임경수 전 병원장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닦아다는 평가를 받는 거장,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이 정읍에 남아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이어간다.

정읍시는 최근 의과 공중보건학사의 지속적인 감소로 15개 보건지소를 6명의 공중보건학사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보

건지소장에 임경수 전 병원장을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경수 전 병원장을 임용해 시는 공중보건학사가 과전되는 의료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니어 의사를 보건지소장으로 채용해 의료진을 확충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임경수 전 병원장은 평범한 의료인이 아니다. 그는 대한응급의학회 창립 멤버이자 한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의료계 거장으로 꼽힌다.

최근 정읍아산병원장에서 퇴임한 그는 자신의 길을 다시 정했다. 떠나는데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보

인술을 베풀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오랜 다짐에 보건지소장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임경수 전 병원장은 11월 1일부터 고부보건지소장에서 주 4일(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젊은 의료진과의 협업·멘토링을 통해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며, 보건지소 내 의료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수 시장은 “임경수 전 병원장의 헌신 덕분에 정읍의 공공의료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며 “수도권 대도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호도시 중국 안강시 부안 방문... 교류활성화 모색

부안군, 공동발전 도모 부안군 시찰·간담회 가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외 우호도시인 중국 안강시(부시장 황거) 방문단이 부안에 방문하여 두 도시의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시찰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현 부안군수, 황거 안강시 부시장 및 안강시 방문단 10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 시찰 간담회, 기념촬영, 오찬 순



김철태 고창부군수,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만나 현안사업 협조 요청

김철태 고창부군수가 지난 22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방문했다.

김철태 부군수는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을대교(고창해리~부안변산) 건립사업, 신활력산업단지 계획 변경, 군도호선 확포장사업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창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립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전라환경영향평가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지텍 등 입주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보전방안도 협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안강시 대표단의 부안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부안군과 안강시의 공동발전과, 활발한 경제, 문화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거 안강시 부시장은 “부안군에서 보여주시는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만남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가 추진되길 기원한다.”고 하였다.

한편 안강시는 인구 310만을 가진 섬서성의 지급시로 섬서성 교통허브인 동시에 1급 물류집산지로서 고속도로 네트워킹이 연이어 개통되어 이미 중국 서북 화중 화남지역을 연결하는 중국 내에서도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로, 2021년 4월 28일 부안군과 우호교류협약식을 체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뚜레일로 오감만족 여행하세요’

정읍시,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11월 8일까지 렛츠코레일서 신청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정읍의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내장산 가을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농촌체험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신청을 오는 11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렛츠코레일(www.letskorail.com)에서 하면 된다.

“농뚜레일”은 농촌과 철도의 연결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으로, 농촌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코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정읍의 농촌문화를 관광명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읍의 대표적인 가을관광지인 내장산 단풍 관광을 비롯해 전통 술도가에서 막걸리 빚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읍 9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쌍화차 거리를 둘러보는 코스까지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키는 알찬 일정이 준비됐다.

“농뚜레일”이라는 명칭은 논두렁, 두

레, 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농촌체험과 철도 여행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상품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은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명소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합하다”며 “이번 ‘농뚜레일’ 상품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읍의 가을을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농뚜레일’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기차를 타고 떠나는 이 특별한 여행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지난 21일 올해 100번째 출산기정을 방문해 생명 탄생 축하했다.

고창군, 100번째 아기 탄생... 출산장려 정책 결실

고창군이 지난 21일 올해 100번째(보건소 출산등록 기준) 출산기정을 방문해 생명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경사의 주인공은 고수면에 거주 조의현·이은주씨 부부의 셋째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세 아이의 부모가 된 조씨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고창군의 100번째라 더 뜻깊고, 많은 아들에게 축하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고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직원 일동이 준비한 금반지와 함께 출산 축하 박스를 전달했고, 인제임성과와 고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쌀과 아이용품 등을 지원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은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비(200만원),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산후건강관리비(20만원) 지역 내 분만 병원에서 출산 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100번째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출산·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